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7월 6일  
ISSN 1976-0507 Vol. 3 No. 27

## 한·폴란드 경제협력, 양국 경제회복 촉진계기

이 철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오 태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7월 7~8일 폴란드를 국민 방문할 예정인바, 한국과 폴란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2009년 1/4분기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경제실적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견실한 경제체질임을 입증함.

  - 2009년 1/4분기 EU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5%를 기록한 반면, 폴란드는 1.9%를 기록하여, EU 회원국 중에서 키프러스(1.6%)와 더불어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 폴란드는 중·동구(CEE) 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이지만, 폴란드 경제의 잠재력 및 지정학적 중요성과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 ▣ 폴란드가 구매력이 높은 거대시장 EU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신규회원국임을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정책을 수립해야 함.

  - △대(對)EU 수출증대를 위한 판매거점, △대EU 우회수출을 겨냥한 생산거점, △자동차, 전자, 통신 산업 등의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폴란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이명박 대통령 폴란드 방문의 의미

-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최대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EU시장에 대한 진출 거점을 구축함.
  - 인구와 교역규모 면에서 미국의 약 2배에 달하는 거대시장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수출시장임.
  - 특히 폴란드는 지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 신규회원국 가운데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EU 내에서 영향력도 막강함.<sup>1)</sup>
-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폴란드는 중동구 지역 내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및 투자대상국임.
  - 중부유럽의 폴란드는 서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 발트해 이북의 북유럽과 발칸 지역의 남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가장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폴란드는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25대 수출국이며, 2009년 3월 말 투자잔액 기준으로 25대 투자대상국임.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7월 7~8일 폴란드를 국민 방문할 예정인바,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도 견실한 경제체질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가 이번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 경제는 동유럽 금융위기 심화 시에도 비교적 견실한 경제기초체질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EU 27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EU 내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 기대됨.
  -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이 전망된 바 있음.
  - 따라서 자동차, 전자, 통신 등 유망산업 부문에서 양국간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추진, 한국의 대EU 수출 확대, 폴란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1) 폴란드의 인구는 약 3,812만 명(전체 EU 신규회원국 인구의 50% 초과), 경제규모도 EU 신규회원국 전체 경제규모의 50%에 근접함. 또한 EU의 가중다수결제도 의결권에서 폴란드는 총 345표 가운데 27표로 스페인과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각각 가지고 있는 29표 다음으로 많은 것임.

## 2. 폴란드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 EU 가입 이후, 폴란드 경제는 연평균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개선됨.

표 1. 폴란드 경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5.3	3.6	6.3	6.8	4.9
실업률	19.1	17.6	14.8	11.4	9.5
인플레이션	3.6	2.1	1.1	2.4	4.3
재정수지(GDP 대비)	-4.5	-2.9	-2.4	-1.4	-1.9
수출	81,573	96,414	117,216	144,705	174,670
수입	87,267	99,200	124,172	161,555	198,973
경상수지	-10,245	-3,725	-9,315	-19,885	-28,855
환율(LCU/\$)	3.6490	3.2356	3.1035	2.7656	2.4093

자료: Global Insight(June, 2009).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EU 가입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세를 보임.
- 2009년 1/4분기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경제실적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견실한 경제체질임을 입증, EU 회원국 가운데 빠른 경제회복이 기대됨.
  -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이 전체적으로 -4.5%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 1/4분기에 폴란드의 실질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를 기록, 회원국 중 가장 좋은 경제실적을 보여줌.<sup>2)</sup>
  - 2008년 GDP 대비 재정적자 1.9%, 소비자물가 상승률 4.3% 등으로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큰 내수, 비교적 낮은 대외의존도, 보다 엄격한 금융감독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음.<sup>3)</sup>

2)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03062009-BP/EN/2-03062009-BP-EN.PDF](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03062009-BP/EN/2-03062009-BP-EN.PDF)

3) 폴란드는 2008년 대외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수입)와 금융통합도(GDP 대비 대외자산+대외부채) 모두 약 70%로 중·동구 EU 신규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으며, 예대비용, 외채비용, 해외차입비용, 경상수지 등도 상대적으로 양호함.

■ IMF가 지난 2008년 5월 6일 폴란드에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를 통한 206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폴란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IMF의 FCL에 의한 자금지원은 폴란드가 멕시코<sup>4)</sup>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IMF 지원이 이뤄지면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이 약 1/3 정도 증액될 것으로 기대됨.
- FCL은 기존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Short-term Liquidity Facility)를 대신하여 IMF가 최근 시행한 단기 신용라인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IMF로부터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고, 위기에방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의 엄격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음.<sup>5)</sup>

■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2009년 폴란드 경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2010년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어 중기적으로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경제전망치를 발표한 EIU와 Global Insight의 경우 2009년 폴란드 경제가 각각 -0.8%와 -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1.4%를 예상함. 그러나 2009년 폴란드 경제는 다른 EU 회원국과 비교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표 2. 폴란드 경제전망

	EU 집행위원회		EIU		Global Insight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경제성장률(%)	-1.4	0.8	-0.8	1.5	-0.4	1.9
인플레이션(%)	2.6	1.9	2.5	2.0	3.9	2.7
경상수지 (GDP 대비 %)	-4.7	-3.7	-5.7	-4.6	-4.5	-3.5
재정적자 (GDP 대비 %)	-6.0	-5.6	-6.0	-4.5	-4.8	-3.3

자료: European Commission(May, 2009); EIU(June, 2009); Global Insight(June, 2009).

-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둔화되면서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기관별로 2010년 폴란드의 경제성장률을 0.8%~1.9%로 전망함.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2년 이후 4%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4) 멕시코는 지난 4월 1일 470억 달러의 FCL 자금지원을 IMF에 신청함.

5) FCL은 IMF가 경제기초체질, 정책건전성, 정책 이행실적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별 대출한도는 IMF에 출자한 금액의 다섯 배에서 무제한으로 대출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3년 3개월에서 5년 상환 연장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대출금액에 따라 연 0.43~2.42%였던 것을 대출기간 3년 이내는 0.42%, 3년 이상은 1.42%로 설정함.

■ 지난 3월 5일 폴란드 경제부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2030(Energy Policy for Poland until 2030)’ 초안을 공개, 원전개발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sup>6)</sup>

- 상기 초안에는 5대 우선 정책으로 ① 에너지 효율성 증대, ② 국내 원자재 개발, 공급선 다변화, 원전개발 등에 의한 공급의 안정성 확보,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비중 증대, ④ 경쟁적인 에너지 및 연료 시장 개발, ⑤ 환경 저해 최소화 등이 제시됨.

- 폴란드는 현재 에너지 자립도 20% 미만으로 국내 전력생산의 95%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기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석탄의존도를 60% 정도로 감축시킬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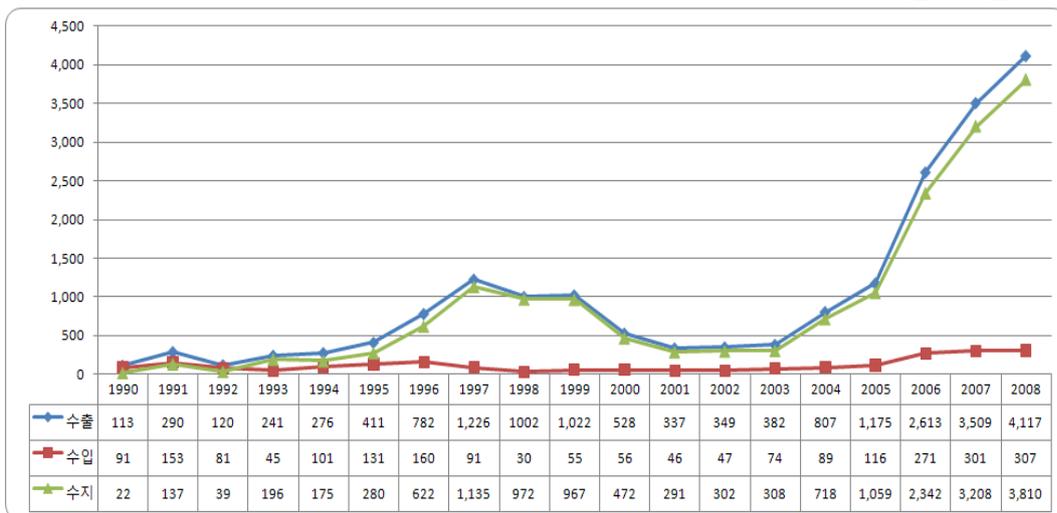
- ‘폴란드 에너지정책 2030’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까지 원전 2기를 건설하여 국내 전력수요의 20~25%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임.

### 3.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한·폴란드 교역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44억 2,387만 달러로, 폴란드는 한국의 중·동구 지역 내 최대 교역대상국임.

그림 1. 한·폴란드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폴란드는 한국의 25대 수출국(2008년 기준, 41억 1,676만 달러)이며, 57대 수입국(2008년 기준, 3억 710만 달러)임.

6) Oxford Analytica(2009. 5). *Poland: Energy Strategy is less revolution than reform*

- 우리의 대(對)폴란드 수출은 광학기기,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와 더불어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컴퓨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수출이 다시 급증함.
- 1990년대 중반의 수출 증가는 우리기업들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 진출에서 기인한 것이며, 2004년 이후의 수출 증가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른 폴란드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 효과와 직접투자 증대에 따른 것임.
- 한국의 폴란드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매우 저조함. 그러나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수입이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 2억 달러, 2008년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섬.

표 3. 한·폴란드 주요 교역품목(2008)

(단위: 백만 달러)

	수출품목	수출금액	수입품목	수입금액
1	광학기기	1,198.9	자동차부품	88.5
2	영상기기	672.2	기계요소	32.2
3	자동차부품	379.0	육류	26.0
4	무선통신기기	282.4	주단조품	15.3
5	평판디스플레이	273.1	운반하역기계	13.0
6	컴퓨터	240.1	동제품	12.1
7	자동차	190.9	기타기계류	10.9
8	철강판	90.7	타일 및 도자기제품	9.8
9	조명기기	73.8	조명기기	7.5
10	반도체	69.9	의류	6.5
합		4,116.76		307.10

주: MTI 3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간 교역에서 무역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 들어 불균형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우리의 대폴란드 수출이 수입의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우리가 한-폴란드 교역에서 38억 966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양국간 교역 활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폴란드의 우수한 제품들을 유망수입품목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폴란드 시장의 잠재력, 지정학적 중요성, 양국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들의 대폴란드 직접투자는 향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3월 말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기준으로 폴란드(약 14억 8,000만 달러)는 우리나라의 25대 투자대상국이며, 중동구 국가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임.
- 하지만 2008년 우리 기업들의 대폴란드 투자는 1억 541만 달러로 우리의 총 해외직접투자(약 362억 5,201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함.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로 2012 공동 개최국으로 향후 도로, 경기장 등 건설 플랜트 부문에 대한 투자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추이 및 업종별 투자

(단위: 신고기준, 건수, 천 달러)

연도별	투자건수	투자금액	업종별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1	6	15,217	농림어업	1	6,000
2002	6	48,725	제조업	215	1,311,031
2003	10	39,104	건설업	12	7,458
2004	16	47,013	도소매업	27	52,148
2005	39	97,883	운수업	9	731
2006	39	295,685	숙박 및 음식점업	2	2,100
2007	37	75,788	부동산업	22	100,415
2008	40	105,412	기타	12	1,782
총누적액	300	1,481,666		300	1,481,666

주: 총누적액 및 업종별 투자의 경우 2009년 3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이밖에도 폴란드 정부의 공공조달시장 및 국유기업의 민영화, 원전개발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여지가 충분함.

- 입찰절차의 투명성, 경쟁 촉진, 규모의 경제 활용, 동등한 입찰참가 기회, 내외국인 공정경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폴란드의 정부조달법이 EU 가입을 앞둔 2003년 10월 대폭 개정되어 외국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가 크게 확대됨.
- EU 가입 이후 EU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수송 및 통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고 있으며, 향후 유로 2012 개최 준비가 본격화될 것임.
- 폴란드는 체제전환 이후 경제개혁 차원에서 주요 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부문과 은행 등 금융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됨.

- '에너지정책 2030'에 따르면, 2기의 원전 건설을 위해 약 2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폴란드 정부는 현재 원전 부문 노하우와 자본력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 4.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향

- 폴란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동유럽 변방 국가 중 하나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거대시장 EU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신규회원국임을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정책을 수립해야 함.

- 폴란드 국민들은 자국이 동유럽(Eastern Europe)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중부유럽(Central Europe) 국가로 지칭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생각하는 동유럽은 자국보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 동쪽의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CIS 국가들임.

- 이러한 폴란드의 중요성을 감안, 대EU 수출 증대를 위한 판매거점, 대EU 우회수출을 겨냥한 생산거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 통신 등 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폴란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폴란드는 서유럽과 CIS, 북유럽과 남부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해운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 유럽시장 전체를 겨냥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큼.

- 폴란드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한국기업의 현지생산법인을 대대적인 설비확충을 통해 EU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거대하고 안정적인 서유럽 시장과 성장성이 뛰어난 중동구 및 CIS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음.

- 폴란드는 자동차, 전자, 통신 등의 산업 분야에서 EU 신규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잠재력도 인근 중·동구 지역 중 최대임.

- 폴란드의 이와 같은 지정학적 및 경제적 중요성과 향후 성장성을 감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진출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1,200억 달러 정도(2009년 기준)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수입시장 규모가 향후 5년 이내 최소 1,8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증가율 역시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sup>8)</sup>

7) 프랑스의 European Pressurised Reactor(EPR) 설비를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이밖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도 원전협력에 대해 협의 중임.

8) Global Insight(2009. 6),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